

치 사

오늘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불교계 사회복지 지도자와 자원봉사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님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불교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과학문명의 발달을 이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층의 고통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증진을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부도 적극 나서 복지강국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90여 개에 불과하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2005년 500여 개 시설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불교 사회복지 전수 조사 결과 1,000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불교사회복지 시설이 사회 곳곳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불교 복지계 스님들과 재가 전문가들, 그리고 자비구현의 일념으로 부단하게 복지 현장에서 고군분투 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와 봉사 현장에서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국민복지 진흥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된 수상자

**여러분의 공로에 대하여 각별한 감사의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복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여러분은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대승보살의
현신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보살의 행동목표는 나와 함께 온
중생이 모두 성불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불교사회복지의 분명한 지향점 또한
이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불교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법인 대표와 시설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보살정신으로 원력을 세워 복지사업의 지도적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날, 우리 한국불교는 소통과 화합으로 이 땅을 행복이 넘치는 불국정토로 화현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대덕스님, 그리고 불교사회복지 관계자와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2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 승